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 그리고 “실천(Action)”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 홍 택

세계의 빙상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활약상은 우리가 각종 마스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신고 있는 피겨 스케이트가 일본의 한 장인의 손끝에서 다듬어지고 수리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연아 선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 선수와 비교하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 방송한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피겨 스케이트 기술은 특출한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피겨 스케이트를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만들고 유능한 피겨 스케이트 선수를 양성하는 인프라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유능한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있기 위해서 최고의 스케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선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두터운 선수층,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잡지, 방송 등과 같은 홍보매체와 유명 선수들의 캐릭터 상품 등 관련 상품들이 유기적으로 엮히고 섞이면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반공학기술에 있어서 기업에서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신공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외국 기술인 것이 많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신기술과 신공법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세계적인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자세도 고쳐야 하겠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과 공법이 있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고 소재분야나 기계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관련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반공학회나 토질및기초기술사회 등 전문학회의 역할도 고유의 전문영역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열악한 기후조건과 극한의 지형조건을 이기고 점점 대규모 도심도로 계획되고 있는 인프라시설들을 보면서 변화하는 공학적 요구에 맞게 우리 지반공학인들의 전문영역도 유연하게 변해야 하겠고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도전정신 또한 필요하겠다.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서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어둠이 있었기에 무한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듯이 위기가 있었기에 무한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으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실천의 자세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한다.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안상로 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반기술인들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실천”하는 자세로 토기회의 미래를 열어 가시리라 믿으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새해를 기다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